

광주 군공항 부지 확보 ‘속도’… 기업 수요 따라 산단 추가

이 대통령 주재 2차 점검회의…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제정
전력 2028년 말부터…용수 2030년까지 하루 65만t 공급

광주군공항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오는 2028년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타 지역 군공항으로 임시배치하는 한편 인근 탄약고 부지도 기업들의 수요에 따라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로 추가 지정한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소요되는 전력은 공급선로를 신속히 구축해 2028년말부터 공급하고, 용수는 2030년까지 하루 65만톤의 용수를 하수 재이용과 인근 댐을 활용해 공급한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 회의’를 마치고 이런 내용을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강 실장은 “군 시설 이전 및 임시 분산 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해 군 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단으로 조기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방부에게 2028년까지 광

주 기지 기능을 타지역으로 임시 배치할 것을 지시하며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 공항 인근의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 비서실장은 “현재 광주 군공항 250만 평만 국가 산단 후보지로 지정돼 있는데 기업들의 수요를 확인한 후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탄약고 예정부지의 경우 조성 작업을 조기에 착수해 기업이 원하는 경우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부지와 기반 시설이 중요하다”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본 구마모토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모두 발언에서 밝혔다.

전력·용수도 적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전력의 경우 1단계 공급 선로를 신속히 구축해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하는 한편, 지역 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열병합, LNG 발전 등을 통해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발전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용수에 대해서도 “오는 2030년까지 필요한 하루 65만 톤의 용수를 하수 재이용수와 동북댐, 주암댐, 나주댐 등

인근 댐을 활용해 차질 없이 확보해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하며 “속도전을 넘어 전력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실장은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 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히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메가프로젝트가 과감한 규제 혁신과 부처 간 벽 허물기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며 “청와대에 신설 예정인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과 함께 총리실에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뒤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6월 29일 메가프로젝트를 발표 후 40여 일이 지난 짧은 시간이지만 국가 산단 후보지 지정도 이루어졌고, 전력 용수 등 인프라 관련 계획들도 상당부분 구체화됐다. 소부장 등 중소기업 상생 방안도 점검했다”며 “정부는 기업의 투자 계획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산업 생태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전남광주 광산구의 수완숲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여름방학 초등 틈새돌봄사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은 정 장관이 아이들에게 점심을 직접 배식하는 모습.

“방학 중 끼니 거르지 않게”…정은경 장관, 초등 틈새돌봄 살피

수완숲지역아동센터 방문…점심 배식 등 점심
급식·프로그램·인력 운영 등 현장 의견도 청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수완숲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여름방학 초등 틈새돌봄사업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초등 틈새돌봄사업이 방학 중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의 돌봄과 식사 공백을 현장에서 충실히 보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초등 틈새돌봄사업은 방학 중 돌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을 확대한 사업이다.

크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전 간식과 점심·저녁을 제공하는 유형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과 저녁을 제공하는 유형 두 가지로 나뉜다.

학기 중 해당 센터를 이용하지 않았던 초등학생도 신청을 거쳐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기초수급가구 등은 무료이며,

일반아동은 하루 2000원(주 1만원) 이내이다.

지난달 28일 기준 전국 1529개소가 지정돼 이번 여름방학에는 오는 21일까지 운영된다. 가까운 센터와 신청 방법은 전국 공통번호(1522-1318)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www.ncrc.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장관은 광주특별시와 광산구 관계자, 수완숲지역아동센터 센터장 및 생

활복지사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센터의 운영 일반 현황과 틈새돌봄사업의 실제 이용 수요와 이용자 반응을 비롯해 급식·프로그램 운영, 인력 배치 등 신청 사항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사

업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도 함께 논의했다.

이어 정은경 장관은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을 만나 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눈 후 아이들에게 점심을 직접 배식하면서 급식 제공과 위생관리 상황을 살피고, 방학 중에도 아이들의 돌봄과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정은경 장관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사업을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며 “남은 사업 기간에도 급식 위생과 아동 안전을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민형배, 목포대·순천대에 통합 결단 촉구

‘국립의대 신설’ 호소문…20일까지 계획서 제출 요청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10일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정부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에 통합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민형배 시장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국립의과대학 신설은 특별시민과 지역사회가 오랜 시간 한마음으로 요구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속에서도 정부를 설득해 힘겹게 얻어낸 소중한 기회다”며 “양 대학이 통합에 합의해 하나의 대학으로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신청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의과대학 신설 후보지로 선정하고, 양 대학이 통합방안을 합의해 오는 20일까지 국립의과대학 신설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민 시장은 “양 대학이 통합에 합의하지 못하면 어렵게 확보한 의대 정원이나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져 매우 긴박한 상황이다”며 “이제는 더이상 국립의대 신설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옛 전남의 섬과 농어촌 주민이 큰 병이 생기면 먼 지역의 병원을 찾아가고, 응급환자는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등 열악한 의료 현실을 언급하며 “국립의대 신설은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다”고 말했다.



했다. 민형배 시장은 “의과대학 소재지가 어느 한 대학, 어느 한 지역에도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임을 잘 알고 있다”며 “대학과 지역의 이해를 넘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체의 미래를 바라봐 달라. 국립의과대학 신설의 기회 자체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통합특별시의 지원 의지도 밝혔다. 민 시장은 “양 대학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며 “어느 한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수련·진료·연구 기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체에 연결하는 조광역 통합의료체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요구했다.

또 “시민들의 생명과 절박함을 가장 앞에 놓고 통합에 합의해 하나의 대학으로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신청해 달라”며 “두 대학이 맞잡은 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의 생명을 살리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반드시 이뤄내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주특별시, ‘EU 포장규제 대응센터’ 가동

지자체 최초…시장 요구 파악해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유럽연합(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의 일부 적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유럽 현지사무소와 연계한 ‘전남광주EU PPWR 대응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은 유럽연합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과 포장폐기물 전 과정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오는 12월부터 일반 적용된다.

포장재 유해물질 사용 제한, 재활용성·재생원료 사용, 포장 최소화, 라벨링 등 포장 전반에 걸쳐 기업의 대응이 요구된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현지 수입자·유통업체의 보완요구나 시장 감시당국의 시정 조치, 판매 중지·회수 등이 이뤄질 수 있어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

특히 식품 수출기업은 용기뿐만 아니라 캡, 라벨, 인쇄잉크, 접착제, 코팅제 등 포장재를 구성하는 세부 요소까지 점검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독일 베를린 농

수산식품 상품판매장과 아마존 전남 브랜 드관 운영, 틱톡상 연계 마케팅 등으로 유럽시장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센터 가동으로 유럽 현지 거점의 역할을 시장 개척에서 규제 대응까지 확대한다.

센터는 전남광주 수출·수입을 통해 유럽연합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준비 중인 지역기업에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의 주요 의무사항과 준비사항을 안내한다. 또한 기업별 제품·포장 정보와 시험성적서 등을 바탕으로 기술문서(TD)와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기업별 문의는 제품과 거래정보 보호를 위해 이메일로 접수해 개별 답변한다. 기업별, 수출제품·대상국, 포장재 종류, 문의 사항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기업 상황에 맞는 규제 대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유럽연합 포장규제 대응이 필요한 지역 수출기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럽사무소(info@j-europe.eu)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1면 ‘광주군공항’서 계속

이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함께 지원할 방안, 그리고 나아가서 퍼지컬 AI의 발전이 제조 인공지능 전환에 영향 강화로 이어지는 산업 대도 약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투자자가 이뤄지고 공장을 지어버린 뒤에는 이미 늦다. 프로젝트 초반부터 모두의 성장을 만들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 SK이노베이션담당 사장,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이 참석한 데 대해 “이미 상생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앞으로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부탁드린다”며 “첨단 전략 산업이 성장하면 내 삶도 바뀐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더 과감한 투자와 혁신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권 강점 살려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

▶1면에서 특히 여수 상권의 강점은 야간 소비다. 이순신광장 일대는 주간 매출 비중이 78.7%로 나타났다. 종파동 남만포차거리의 경우 하루 전체 카드 매출의 61.0%가 야간에 집중됐다.

낮에는 관광 콘텐츠와 로컬 맛집을 중심으로 소비하고, 저녁에는 해양공원과 낭만포차거리로 발길을 옮기는 흐름이 형성된 것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여수의 소비 구조를 관광객이 인근 지역을 미리 방문하면서 발생하는 ‘주간 낙수 14~17시 효과’와 연결했다.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주요 관광지 사이의 이동을 유도하면 개별 관광지

를 넘어 주변 상권 전체로 소비 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두 지역의 사례는 지역 상권이 처한 환경에 따라 성장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상무지구처럼 공공·행정·금융·기업 등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배후수요가 있는 곳은 고정 소비층의 구매력을 높이고 시간대별 소비를 확대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반대로 여수처럼 관광객이라는 외부 소비층이 강한 지역은 관광 콘텐츠를 주변 상권과 연결하고 체류시간을 늘려 소비의 ‘낙수효과’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